

문학과지성사를 세우다

책으로 쓰는 자서전 — 16

김병익 | 문학평론가

“예정보다 일찍 유학을 마친 김 현은 한 회식자리에서 동인들이 출자해 출판사를 세우자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필요성을 두가지 들었다.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나와 같은 실업자가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므로 출판사라도 만들어 거기에 기대야 어려운 시절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그 첫째 이유였다. 또 하나는, 《문학과지성》을 언젠가는 우리 손으로 직접 발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출판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자협회장의 임기는 원래 1년이지만 그러나 나의 재임은 한 번의 연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 남짓했다. 전임자의 잔여 임기 4개월여에 다음 총회에서 재추대되고 난 후 채 두 달이 못 돼 스스로 물러난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반년간은 내 개인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현실참여를 하며 대의를 위해 헌신한다는 보람을 얻었던 시절이었다. 회장 취임과 더불어 시작돼 전국의 신문·방송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된 언론자유운동부터 《동아일보》의 이른바 광고 사태를 거쳐 이듬해 3월 권력과의 유착 속에서 기자들을 축출하는 ‘동아·조선 사태’에 이르기까지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의외로 많았다. 개개 언론사 기자들의 운동을 유기적으로 연대시켜야 했고 이 운동을 선언에서 실천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했으며 연일 성명과 비판으로 권력과 대항하며 기자들을 격려해야 했고 그리고는 신문사에서 쫓겨난 기자들의 생계를 돕는 한편 진행중이던 《기자협회 10년사》 간행 등의 내부 일을 해야 했다. 내가 휴직 조치를 당해 신문사 근무를 하지 않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그리고 월남이 패망하던 1975년 4월 하순, 국제기자연맹에 한국 언론계 사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의 보고서가 우체국에서 발각되자 그것을 빌미로 중앙정보부는 회장단을 남산으로 연행해 5박 6일간의 억류 끝에 사퇴를 조건으로 우리를

방면했다. 이 당시의 자상한 회상들은 그러나 다른 기회로 미뤄야 할 것이다.

외압으로기자협회장 물러나

그래서 나는 4월말에 한국기자협회장을 사직했고 물론 무기정직 상태여서 신문에 나갈 수도 없었다. 나는 공직과 직장을 한꺼번에 잃었지만 그 5월은 참으로 밝고 개운한 시간들이었다. 햇빛은 따뜻하고 하늘은 파랗으며 나는 사회인이 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치 방학을 맞은 어린이처럼 자유로움과 휴식감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 휴식 기간중에 《한국신학》인가의 청탁으로 〈한국 기독교와 한국 문학〉을 썼고(이 글을 보고 기독교교수협의회장을 지낸 고려대 김용준 박사가 소설가 박순녀씨를 통해 면식이 없는 나를 불러내 따뜻한 저녁 식사를 사준 것이 감사하게 기억된다), 민음사의 주문으로 롱펠로우 시선집 《햇빛과 달빛》을 번역했다. 더러 시내에 나가 친구들도 만나고 혼자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김현과 김치수가 프랑스 유학중이어서 김주연과만 《문학과지성》 편집일을 하기도 하면서 나는 평온하고도 밝은 봄을 즐겼다.

그러나 그 평온 뒤에는 우려와 소침이 숨어 있었다. 실업자로서 생계문제가 현실적인 고민거리

가 아닐 수 없었다. 슬하에는 올망졸망한 네 아들 딸이 있었고 아직은 부모님께 생활비를 의지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원고료 수입은 부정기적인 데다 많지도 않아 도움이 될 수도 없었다. 게다가 투사도 못 되면서 한바탕 저항적인 제스처로 떠들썩하게 만들었다는 데서 오는 자괴감이 쌓여가는 만큼 세상에 대해 조금씩 주눅들린 마음으로 기가 좋아하고 있었다. 자주 놀러가던 민음사에 들러서도 공연히 바쁜 것처럼 허세를 부리게 되면서 내가 무언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싶었다. 김주연과 잡지 일을 상의하고 황인철, 홍성원, 황동규, 정현종 등의 친구들을 만나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깥일의 거의였다.

그리고 6월인가 김 현이 예정보다 일찍 프랑스로 유학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한 여명의 어느 고등학교 야구대회 구경을 하고 몇몇이 저녁을 먹는 참이었을 것이다. 김 현이 마음먹고 기회를 기다려온 듯, 좌중을 향해 동인들이 출자를 해서 출판사를 내자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 그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나와 같은 실업자가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므로 출판사라도 만들어 거기에 기대야 어려운 시절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그 첫째 이유였다. 또 하나는, 《문학과지성》이 지금은 일조각에서 출판을 감당해주고 있지만 언젠고 우리 손으로 발행해야 진짜 우리의 잡지가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출판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황인철을 포함한 동인 5명이 2백만원씩 내면 창업 비용이 될 것이고 주변의 많은 작가, 시인들의 작품을 받아내면 원고도 충분할 것이어서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동인들의 출자로 문학과지성사 차려

김 현의 이 제의 이전에도 내게 출판사를 권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일축했다. 어느 출판사에 놀러갔다가 수금하러 온 제작처 직원과 그 출판사 사장이 말씨유를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 사장은 며칠 후에 오라는 것이었고 그 직원은 그 며칠 후가 몇 번째냐고 대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장면은 출판사 경영의 어려움을 말해주는 것이었고 거래처간의 각박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10년간 월급쟁이로만 지내온 나로서는 출판사 권고를 받을 때마다 바로 그 어려움과 각박함을 드러내주는 장면만 떠올렸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도저히 감당해낼 것 같지 않았다. 그랬기에 김 현의 제의에도 내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좌중의 친구들이 말을 보태며 내게 격려와 강요를 가해왔다. 나는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했고 그리고 며칠 후 황인철과 동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결국 수락하고 말았다. 김 현이 내세운 명분에 못이겨 수락할 때의 내 심경은 후배들이 기자협회장으로 나서달라는 권고를 거절하지 못할 때의 심경과 참 비슷한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문학과지성》은 1977년 여름에 일조각에서 인수받아 왔고 1980년 '서울의 봄' 때 교수 서명에 참여한 김치수가 퇴직당하고서 다시 복직하기까지 3년여 동안 문학과지성사 고문으로 자리를 줄 수 있었던 것은 김 현의 말대로 우리가 출판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어떻든 우리는 아직 유학에서 돌아오지 않은 김치수는 뒤로 미루고 나머지 네 명이 200만원씩 출자할 준비를 했다. 김 현은 유산 받은 말죽거리의 땅을 팔아 마련했고 나는 할 수 없이 부모님께 청을 해서 얻어냈다. 이렇게 자금을 모으면서 우리는 사무실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마침 김주연과 외사촌이 되는 이기웅씨가 일지사의 상무직에서 물러나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출판사 열화당에 전념하기로 하고 사무실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선 사무실 하나를 공동으로 얻어 사용하자는데 합의했다. 그리고서 구한 것이 청진동 해장국 골목의 끄트머리에 있는 건물의 2층 한약방 한쪽 손바닥만한 공간이었다. 책걸상이며 소파 등은 중고품 가구점에서 싼 것으로 구하고 여자 급사 하나를 채용해 입주한 것이 11월 중순이었다. 그리고 신청한 출판사 등록증의 발부일이 마침 12월 12일자였고 그래서 이날을 문학과지성사 창사 기념일로 삼았다. 등록증에서 사업주 명의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아내 이름으로 했고 나는 주간으로 적었는데 그래서 1978년 가을 그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꿀 때까지 문지 책의 간기(刊記)는 발행인이 '정지영'으로 돼야 했다.

처녀출판으로 홍성원과 조해일의 소설 퍼내

7평의 좁디좁은 공간 안에 낡은 응접 세트와 책을 쌓아둘 약간의 자리, 그리고 책상 세 개로 딱 차는 사무실, 그것도 사장 둘에 사환 하나라는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몰골 속에서 그러나 문학과지성사가 출범했고 열화당이 독립한 것이었다. 풀은 그래도 동인들은 대견해 하면서 의욕적이었고 친구들은 장래를 격려하며 축하를 보



문학과지성사의 출발은 그야말로 미약하기 짝이 없었다. 7평의 공간에 열화당과 같이 사무실을 쓰면서 사장 둘에 사환 하나라는 우스꽝스런 모습을 연출했던 것이다. 사진은 문학과지성사가 처녀출판한 《주말여행》과 《겨울여자》.

내줬다. 나도 그때쯤에는 체념을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의욕이 붙어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책임감에 차 있어서, 이제 무언가 우리 일, 아니 내 일을 해볼 만하게 됐다고 자신감을 북돋고 있는 중이었다. 개업 고사에는 고 은씨가 와서 축문을 읽어줬고 우리는 자리를 옮겨 사무실 바로 뒤에 있는 경주집에서 지나하게 술을 마시며 희망에 겨워했다.

출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미리 교섭해둔 원고의 발간을 서두르면서 우리의 책들을 어떻게 만들까 숙의했다. 그래서 정한 방침이 소설은 손에 잡히기 쉽게 4·6판으로 하고 당시의 관행에 따라 세로조판을 하되 이론서들은 국판으로 하면서 가로조판으로 변별시키도록 했다. 그래서 동시에 작업이 진행돼 1976년 1월 중순과 하순에 열출 사이로 나온 '우리의 첫책' 이 홍성원의 작품집 《주말여행》과 조해일의 장편소설 《겨울여자》, 그리고 이어 김 현·김주연편의 《문학이란 무엇인가》였다. 홍성원은 우리와도 가장 가까운 친구였지만 당시 가장 정력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면서 평단의 평가도 높이 받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의 창작집은 여태까지 간행된 것이 없었기에 문학과지성사 도서의 제1호로 기록돼도 좋을 것이었다. 조해일의 《겨울여자》는 《중앙일보》에 막 연재가 끝난 인기 소설이어서 초창기의 미려한 사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것이었다. 《주말여행》은 세대사 주간으로 있던 권영빈씨가 표지를 맡아 만들어줬고 두 권짜리 《겨울여자》는 김승옥이 귀여운 표지화를 그려 장정을 해줬다. 우리는 그 두 권을 낸 기념으로 "겨울여자를 찾아 주말여행을 떠나자"는 데 합의해 강릉으로 떼지어 놀러가 경포대 횃집에서 술을 마셨고 이기웅씨의 본가인 선교장(船橋莊)에서 하룻밤 폐를 끼쳤다.

그리고 그달 말, 나는 총판을 위탁한 동대문의 진명서적에서 첫 수금으로 28만원인가의 어음을 받아왔다. 그 중이쪽을 옮겨주고 돌아오던 날, 나는 뿌듯하고 흐뭇한 느낌의 다른 한편으로, 이제 처음 고백하지만, 마침내 내가 이렇게 상상길로 들어서게 되느냐 하는 서운함과 처연함을 결코 지울 수가 없었다. ●